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너와 나, 경계 없이 우리는 모두 친구

※ 이 사례는 정숙경 경북 풍천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풍천중은 전입생이 많은 학교입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전국 각지의 친구들이 모인 것이지요. 이에 풍천중 Wee클래스(이하 위클래스)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또래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또래상담 동아리'와 '몸으로 부딪히는 공동체활동'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변화 이끄는 '또래상담사'

위클래스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문제아가 찾는 공간'이라는 등의 인식이 강해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풍천중에서는 위클래스에 대한 학생들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친구야! 같이놀자' 또래상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래상담사들이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위클래스에서도 가볍게 고민을 털놓고 이야기 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지요.

효과적인 또래상담을 위해 '친구야! 같이놀자' 소속 동아리원들은 상담교사로부터 △대학의 자세 △공감하기 △대화전략 등의 상담기법을 배웁니다. 이후 실습을 통해 상담기법을 활용해보고, 그 과정에서 오고간 감정을 터놓는 소감나누기 활동을 실시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평소 자신의 울타리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상담원들은 이러한 상담기법을 활용해 동아리 밖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어나갑니다. 친구의 고민을 깊이 경청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지요. 또래상담사가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덕분에 학생들이 휴게시간을 보내기 위해 위클래스를 방문하는 등 상담실에 대한 거리감이 좁혀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흘리는 땀만큼 깊어지는 우정

‘친밀감형성 공동체활동’과 ‘우정다지기 공동체활동’은 교우관계 문제가 두드러지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몸으로 부딪히는 놀이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 친밀한 또래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전입생,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도미노게임 △‘우리 기차는 어디까지?’ △단체줄넘기 △친구에 대한 삼행시 발표 등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여러 친구와 몸을 부딪치고 땀을 흘리며 평소 자신이 속하지 않았던 그룹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놀이 프로그램은 강연 프로그램과 달리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그만큼 효과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위클래스에 찾아와 전시된 ‘삼행시 짓기’ 게시물을 보고 뿌듯해하며 “우리 학교 프로그램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계 없이 서로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경기 시흥능곡중 교사동아리 ‘한걸음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과정 평가하는 자유학기 수업, 함께 만들어가요



수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논의중인 한걸음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모습. 시흥능곡중 제공

경기 시흥능곡중에는 자유학기제의 과정중심평가수업을 연구하는 교사동아리 ‘한걸음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있다. 해당 연구회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학습·평가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다수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모여 만든 것.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서문정 경기 시흥능곡중 수학 교사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동료 교사 위한 수업 프로그램 직접 개발

시흥능곡중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과정중심평가수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존 수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국어·영어·수학·사회 과목 등 10명의 교과 교사가 모여 자유학기 수업연구를 위한 연구회를 꾸렸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채로운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3차시 분량의 수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꼼꼼히 검토하며 다양한 요소를 접목해 학생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기획했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에서는 교육용 수학 소프트웨어인 ‘지오지브라’를 활용해 모듈별로 일차함수를 학습하는 활동을 개발했다.

학생들은 지오지브라로 일차함수의 점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고, 코딩으로 x·y절편을 표현했다. 이를 통해 수학적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교과이며,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임을 깨달았다.

김 교사는 “3차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활용도가 높고 실행하기에 쉬워야 한다”며 “수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실현하기에 복잡하면 일회적으로 수업을 시도하는데 그치거나 다른 교사가 수업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구회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공동협의를 진행하며 수업의 완성도와 난이도를 점검했다. 이렇게 제작된 수업 프로그램은 매 학기마다 진행되는 개별 연구자료 발표회에서 공유되고, 다시 한 번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 작업을 거친다. 이후 교사들은 최종 완성된 수업 프로그램을 정리해 책자 형태로 재구성했다.

서 교사는 “수업 구상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으며 교사 자신에게 잘 맞는 자료를 탐색해 본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또한 시험과 무관한 활동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학생을 대하는 방법, 새로운 평가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 교사로서 느끼는 고민을 나누며 교직원 활의 힘을 얻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더 큰 나눔을 위한 노력

연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널리 공유하는 것. 이를 위해 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연구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서 교사는 “자유학기제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1학년 과목에 국한했던 연구범위를 2~3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회는 교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으로도 수업 나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달 시흥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발표회에 참가해 동료 교사들에게 연구회 자료를 선보이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연구회 교사들은 완성된 연구자료를 취합해 어떻게 전시하고 발표할지 의논하며, 동료 교사에게 효과적으로 수업을 공유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서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참석해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수업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